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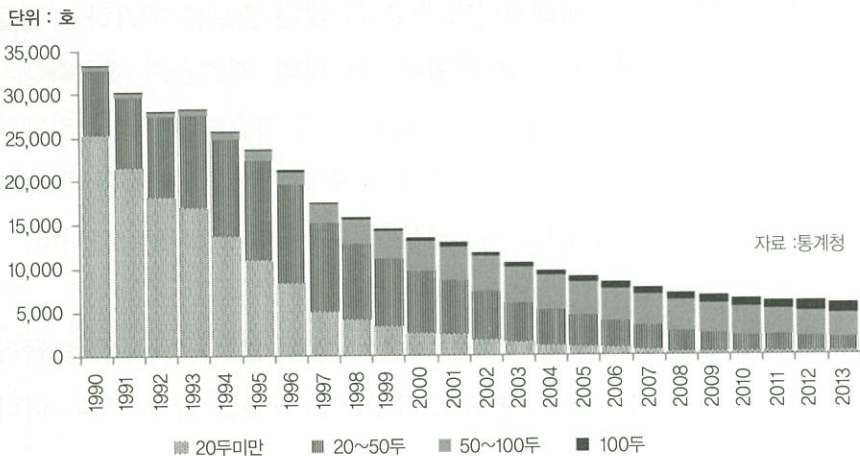
최근 낙농산업의 애로사항과 앞으로의 당면과제



김 태 성
농협경제연구소 부연구위원

최근 우리나라 낙농산업은 그 어느때보다 어려움이 많다. 농가들은 고령화 되는데 농가당 부채가 증가하고,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FTA 확대로 농가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낙농정책연구소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14년 현재 50대~60대 이상의 농장주 비중이 79.8%에 달한다. 농가는 규모화로 소수화되어 '90년 3만3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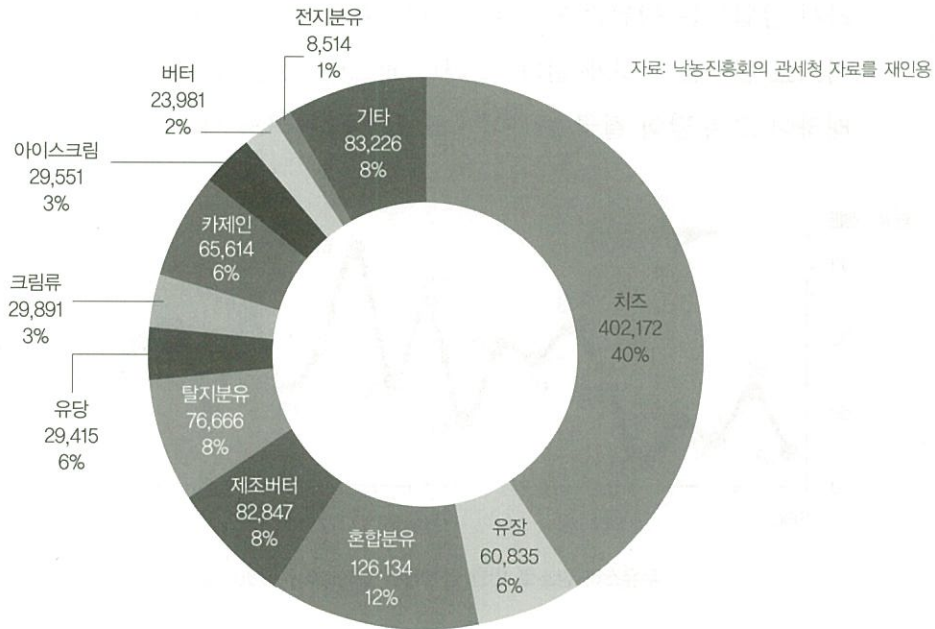


낙농농가 규모화에 따른 사육 규모별 농가구성 변화 (1990~2013)

이던 것이 '13년 5천8백호로 크게 감소했다. '13년 농가당 평균 사육두수는 70.7두를 기록, '95년보다는 무려 3.1배 규모로 커졌으나 시설투자, 쿼터매입, 사료구입 등으로 농가의 절반 이상이 2억원 이상 규모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각종 환경규제로 인하여 과반수 이상의 농가가 조사료 등의 자급을 위한 토지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낙농정책연구소에 의하면 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상수원수질보전대책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인한 제한으로 부지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적으로는 낙농 선진국들과의 FTA가 진행되어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한·EU FTA는 '11년 5월 비준동의안이 통과, 같은해 7월에 발효되었고 미국도 '11년 11월 비준동의안 통과로 '12년 3월 15일부터 FTA 효력이 발효된 상태이다. '13년 12월 한·호주간 FTA가 타결되었고 '14년 한·뉴질랜드 FTA까지 타결되어 향후 분유와 치즈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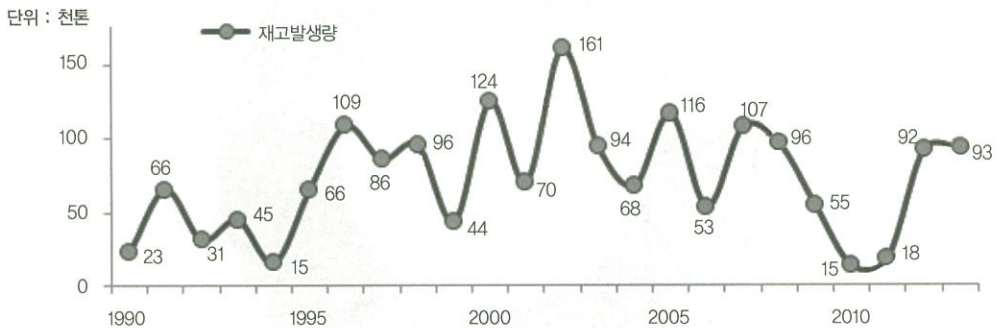
2013년 유제품 수입품목별 수입액 비중 (단위 : 천달러)



한편 유업계에서는 백색시유의 소비가 감소하여 원유수급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농가들의 노력으로 젖소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작년 겨울에는 기상조건이 양호하여 원유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는데 백색시유 소비가 감소하여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는 백색시유 소비량이 전체 유제품 소비량의 약 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백색시유 소비가 부진하면 원유 공급과잉이 초래되기 쉽다. 이로 인해 해마다 반복되는 원유생산 과잉문제의 해소가 유업체 이익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원유는 유통기한이 짧아서 재고가 남으면 탈지 또는 전지분유로 건조 보관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제조원가가 발생한다. 그러나 분유 제조원가가 분유 자체 가격보다 높아 일단 분유재고를 만들면 어느정도 손실이 불가피해진다. 따라서 유업체는 원유를 재고로 남기지 않기 위해 백색시유를 판매하는데 경쟁적으로 전력을 다하게 된다. 그러나 과도한 할인경쟁은 영업이익의 하락을 초래하여 그 부담이 결국 농가에게로 전가될 우려도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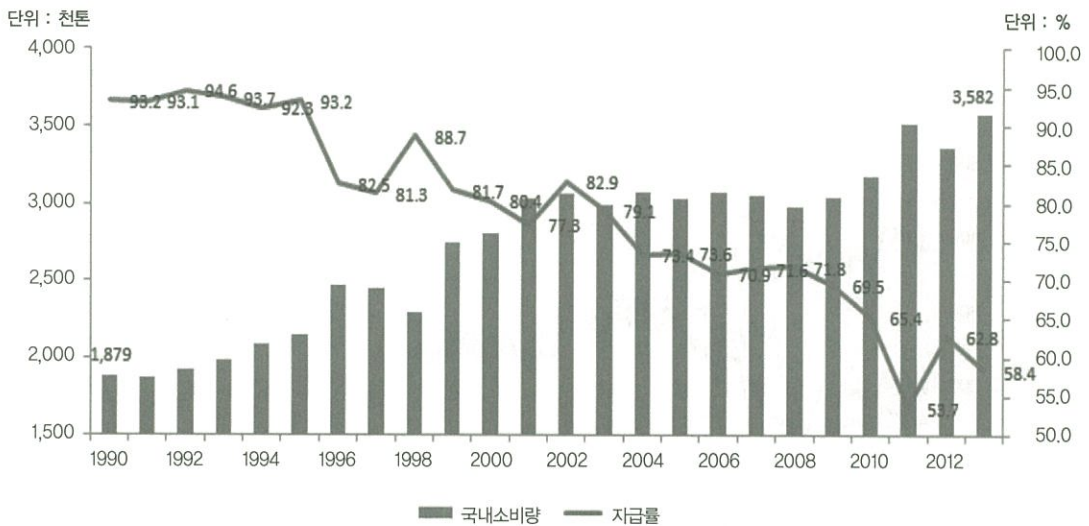


우유소비 감소로 인한 잉여원유 발생추이 (1990~2013)

자료 : 낙농통계연감

※ 재고발생량은 월말 분유재고량을 원유량으로 환산한 것

반면에 백색시유 이외의 전체 유제품 소비 수요량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국내산 원유의 공급과잉 문제와는 또 별개로 우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유업체를 비롯한 식품업계는 곡물 섞인 수입산 혼합분유 등을 유아용 조제분유와 농후발효유, 유음료 및 제빵분야에 널리 사용한다. 이는 수입산이 가격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으로 국내산 원유 재고적체 문제를 더욱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국내 유제품 수요량 증가와 국내산 자급률 하락추이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유가공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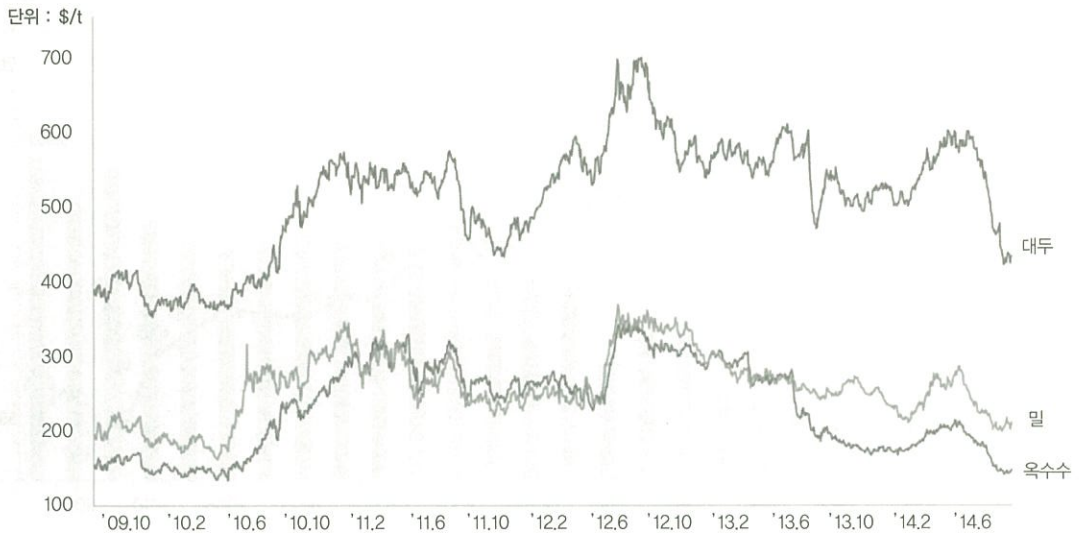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우려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우유 생산비는 2013년 80,713원/100 l로 전년 78,414원보다 2.9% 증가했다. 우유 100리터 생산비중 '13년에 소요된 사료비는 모두 4만6천원을 기록했는데 그중 농후사료가 1만9천5백원, 조사료는 1만2천원, TMR사료 1만5천원이 소요되어 배합사료의 비중이 가장 큰 42.0%를 차지했다. 그러나 향후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신흥국의 사료곡물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배합사료의 원료가 되는 곡물가격 상승 우려를 배제하기 힘들다.

2013년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사료비 구성과 비중

단위: 천원, %

구 분	전체 사료비		농후사료		조사료		TMR사료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우유	46,41	100	19,50	42,0	11,96	25,8	14,95	32,2
육우	418,00	100	349,00	83,5	42,00	10,0	27,00	6,5

※ TMR사료(Total Mixed Ration) 소가 필요로하는 영양소요구량(사양관리표준)을 충족하도록 여러 종류의 사료를 혼합한 사료
 자료: 2013년 축산물생산비조사(통계청)



3대 배합사료 원료용 사료곡물의 국제가격 변동추이

주: 양곡년도(전년1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기준
 자료: 시카고 곡물거래소

미래에는 세계적으로 유제품도 인구의 증가와 신흥국들의 경제발전에 따른 소비증가를 생산량이 따라가지 못하여 공급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즉 EU 소속 낙농조합 '소디알'에서는 '11~'23년간 1인당 우유소비량이 선진국은 0.2~0.9% 증가하고 중국과 인도 등 동남아 신흥국은 이보다 더 크게 증가하여 1.2~1.9%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세계의 우유수급 현황과 향후 전망 (2010년 기준)

구 분	2010(A)	2020(B)	2030(C)	2020		2030	
				B-A	증가율	C-A	증가율
세계인구(억명)	69	77	84	8	11%	15	22%
1인당 소비량(kg)	102	110	121	8	8%	19	19%
세계소비량(만톤)	70,374	84,689	101,649	14,325	20%	31,274	44%
세계생산량(만톤)	70,314	82,384	95,076	12,070	17%	24,762	35%
부족량(만톤)	-60	-2,314	-6,573				

자료 : Sodial(International Dairy Magazine, 2013)

그러나 우리나라 낙농산업은 여러나라와 FTA가 체결되는 현 추세로 볼때 앞으로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농가들 스스로 낙농산업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보고 있다는 점이다. 농가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 농가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경우 더 이상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앞선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쌀과 대등한 정도의 필수식품으로 정착한 우유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가 고령화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과도한 부채가 농가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정시킬 대책도 필요하다. 또한 양질의 조사료 자급률을 최대한 높여 사료비를 절감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최대한 제고해야 한다. 그밖에 퇴비화시설 및 세정수 처리시설 개선 지원 등 세심한 정책 배려가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FTA에 대응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생산자-유업체-정부간에 공감대를 형성, K·MILK 사업등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산 유제품 시장을 육성하는 등 적체된 국내산 분유재고를 효과적으로 원활히 해소할 수 있는 공동노력을 강화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로 보인다. ☺